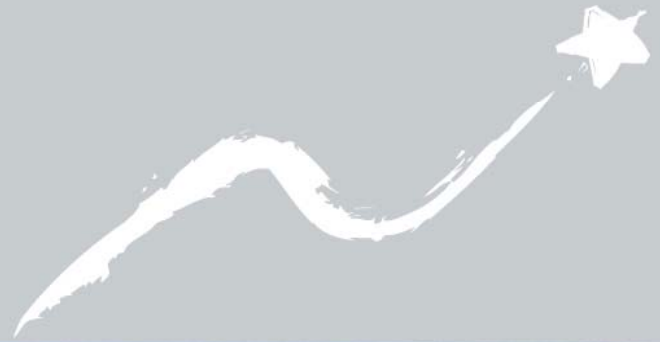


2005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



드리는 말씀

올해로 ‘채용동향 발표회’가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 행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이 늘고, 실업률도 낮아지기를 바랍니다만, 여전히 청년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몇 년째 실업난이 이어지면서 구직기간도 장기화되고 취업 실패횟수도 늘어나면서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구직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크루트가 최근 5년간 이력서 지원 횟수를 통계내본 결과, 500회 이상 이력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6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용통계에 따르면 1년 이상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은 구직 단념자 수도 14만1천명으로 2001년 2월(14만9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하반기 전반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채용규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채용시장이 비교적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을 내시고 한번 더 웃으려 노력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꿈은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음껏 한번 웃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구직자 여러분들이 기업 동향을 파악,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크루트는 구조적 만성화되어 가는 청년 실업문제로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실업률이 0%가 되는 그날까지’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1일
인크루트 대표이사 이광석

목 차

1. 2005년 하반기 채용 스통
 - 589개사 조사, 채용확정 기업 86.9%
 - 채용, 전년보다 3.3% 증가
 - 채용 규모 2만768명
 - 채용 기업 증가 ‘긍정적 신호’
 - 공개 채용 절반 이상

2. 2005년 하반기 채용 특징
 - 일부 대기업 채용 증가 주도
 - 채용 진행 기업 증가
 - 소규모 공개 채용 바람

3. 업종별 채용기상도
 - 전기전자 채용 평년작
 - 정보통신 채용 훈풍
 - 금융 채용 활발
 - 유통·무역 채용 순풍
 - 외·식음료 채용 활발
 - 건설 채용 활발
 - 제약 채용 찬바람
 - 석유화학 채용 흐림
 - 제조 채용 침체
 - 조선·중공업 채용 활기, 기계·철강 소극적 채용
 - 자동차 채용 감소세

4. 업종별 취업 전략

5. 주요기업 채용규모 및 일정표

1. 2005년 하반기 채용 숨통

- 589개사 조사, 채용확정 기업 86.9%
- 채용, 전년보다 3.3% 증가
- 채용 규모 2만768명
- 채용 기업 증가 '긍정적 신호'
- 공개 채용 절반 이상

내수 부진과 고유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채용이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채용시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060300)가 8월 16~24일까지 58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10개사 중 6개사가 올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총 2만768명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112명)보다 3.3% 늘어난 것이다.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물론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을 확정된 기업'은 86.9%(51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결과(86.7%)와 비슷했다. 그러나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61.5%(36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결과(51.2%)보다 10.3%정도 많았으며,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25.5%, 150개사)도 지난해 동기 조사결과(35.5%)보다 10.0% 적었다. 소규모라도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난 셈.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13.1%(77개사)에 불과, 본격적인 채용시즌(9~11월)을 맞아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계획 유무 - 전년 조사결과와 비교표>

		2005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채용 계획 확정	채용계획 있다	61.46%	51.17%
	채용계획 없다	25.47%	35.55%
	합계	86.93%	86.72%
채용 미정		13.07%	13.28%
총 계		100.00%	100.0%
조사 기업 수		상장사 589 개사	상장사 813 개사
조사시점		2005년 8월 16~24일	2004년 8월 16~21일

올 하반기 채용규모는 2만768명으로 지난해 채용규모 2만112명보다 3.3%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57명으로 지난해 56명과 비슷한 편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6168명) △외·식음료(2665명) △금융(1909명) △정보통신(1883명) 등에서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하반기 채용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1214명) △건설(1100명) △조선·중공업·기계·철강(1076명) 등도 1천명 이상의 신규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이밖에 △유통·무역(993명) △석유화학(842명) △제약(633명) △제조(519명) 등은 소폭의 채용을 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보다 채용을 크게 늘린 업종은 외·식음료. 외식업체들이 적극적인 점포확장에 나서면서 지난해 하반기(1958명)보다 36.1%나 더 많은 2천66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도 28.4%나 늘려 잡았으며, 조선·중공업·기계·철강(+21.7%), 유통·무역(+14.3%), 금융(+13.3%) 등도 지난해보다 채용규모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채용을 기록하던 건설업종도 그 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6.3%나 더 채용을 늘릴 예정이며 전기전자도 전년동기보다 2.0% 정도 소폭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41.5%), 제약(-34.9%), 석유화학(-20.5%), 자동차(-15.1%) 등은 채용이 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9~10월에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10월에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24.1%(9월), 28.4%(10월) 등으로 절반 이상(52.5%)이나 됐다. 그 뒤를 이어 11월(12.4%), 12월(4.5%) 등이었다. 채용시기를 아직 잡지 못한 기업도 13.2%,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하겠다는 기업도 17.4%나 됐다.

또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올 하반기 채용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6.1%가 공개 채용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수시채용방식은 29.0%, 공개와 수시채용 병행 기업은 14.9%였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올 하반기 전반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늘어난데다 채용규모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채용시장은 비교적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용 계획 여부	기업수				채용인원	비율			
	계획	없다	미정	총합		계획	없다	미정	총합
전기전자	41	10	5	56	6168	73.2%	17.9%	8.9%	100.0%
정보통신	39	8	6	53	1883	73.6%	15.1%	11.3%	100.0%
금융	53	12	12	77	1909	68.8%	15.6%	15.6%	100.0%
유통	30	9	7	46	993	65.2%	19.6%	15.2%	100.0%
외식음료	32	13	4	49	2665	65.3%	26.5%	8.2%	100.0%
건설	24	9	9	42	1100	57.1%	21.4%	21.4%	100.0%
제약	15	8	6	29	633	51.7%	27.6%	20.7%	100.0%
석유화학	25	10	3	38	842	65.8%	26.3%	7.9%	100.0%
제조	22	18	8	48	519	45.8%	37.5%	16.7%	100.0%
조선·중공업·기계·철강	25	21	6	52	1076	48.1%	40.4%	11.5%	100.0%
자동차	15	10	3	28	1214	53.6%	35.7%	10.7%	100.0%
기타	41	22	8	71	1766	57.7%	31.0%	11.3%	100.0%
총합	362	150	77	589	20768	61.5%	25.5%	13.1%	100.0%

	확정 기업수	확정비율	채용인원		증감률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전기전자	51	91.1%	6047	6168	2.0%
정보통신	47	88.7%	1466	1883	28.4%
금융	65	84.4%	1685	1909	13.3%
유통·무역	39	84.8%	869	993	14.3%
외식음료	45	91.8%	1958	2665	36.1%
건설	33	78.6%	1035	1100	6.3%
제약	23	79.3%	973	633	-34.9%
석유화학	35	92.1%	1059	842	-20.5%
제조	40	83.3%	887	519	-41.5%
조선·중공업·기계·철강	46	88.5%	884	1076	21.7%
자동차	25	89.3%	1430	1214	-15.1%
기타	63	88.7%	1819	1766	-2.9%
총합	512	86.9%	20112	20768	3.3%

* 제조는 섬유, 제지, 고무, 목재 등 기타 제조업

2. 2005 하반기 채용 특징

일부 대기업 채용 증가 주도

최근 2년간 채용규모를 늘려온 일부 대기업은 올 하반기에도 채용규모를 전년 동기보다 늘리는 등 하반기 채용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들이 올 하반기 채용을 늘려 잡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200대 주요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25% 가까이 늘릴 계획(산업자원부의 ‘하반기 설비투자계획’ 자료)인 점을 감안, 설비투자확대(사업확장)에 따라 채용규모를 늘려 잡고 있는 것.

또한 청년실업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것도 채용규모를 늘려 잡는 이유 중 하나이다.

채용 진행 기업 증가

올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채용시장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라도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채용규모도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하는 등 올 하반기 채용시장 분위기는 밝은 편이다.

실제로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61.5%(36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결과(51.2%)보다 10.3%정도 많았으며,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25.5%, 150개사)도 지난해 동기 조사결과(35.5%)보다 10.0% 적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향후 기업들이 채용 본격화에 나설 것을 암시하는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채용시장이 일부 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르게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채용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점, 소수 인원이라도 채용 여력이 생겨난 기업이 늘었다는 점이 그렇다.

소규모 공개 채용 바람

올 하반기 채용 특징 중의 하나는 채용방식이 수시채용에서 공개 채용으로 역전됐다는 점이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소규모로 수시 채용해왔던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는 소규모 인력을 공개 채용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IMF 이후 기업들이 채용방식을 수시 채용으로 서서히 바꾸면서 수시 채용이 대세로 자리잡아왔으나, 올 하반기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공개 채용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크루트가 연간 채용방식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39.5%, 2004년 44.1%, 2005년 49.5% 등 수시채용 방식이 대세였으며 공개 채용방식은 2003년 13.5%, 2004년 28.0%, 2005년 32.0% 등으로 수시 채용 방식에 밀렸었다. 반면, 공개 수시채용 병행 기업은 2003년 47.0%, 2004년 28.0%, 2005년 18.5% 등으로 감소세이다.

그간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진행했으나 올 하반기에는 절반 이상(56.1%)의 기업이 공개 채용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 공개 채용이 늘어난 것은 소수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공개 채용방식을 통해 지원자의 실력을 엄격히 검증, 정예 인력만을 뽑겠다는 것. 또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채용이 집중되는 데다 신입사원 채용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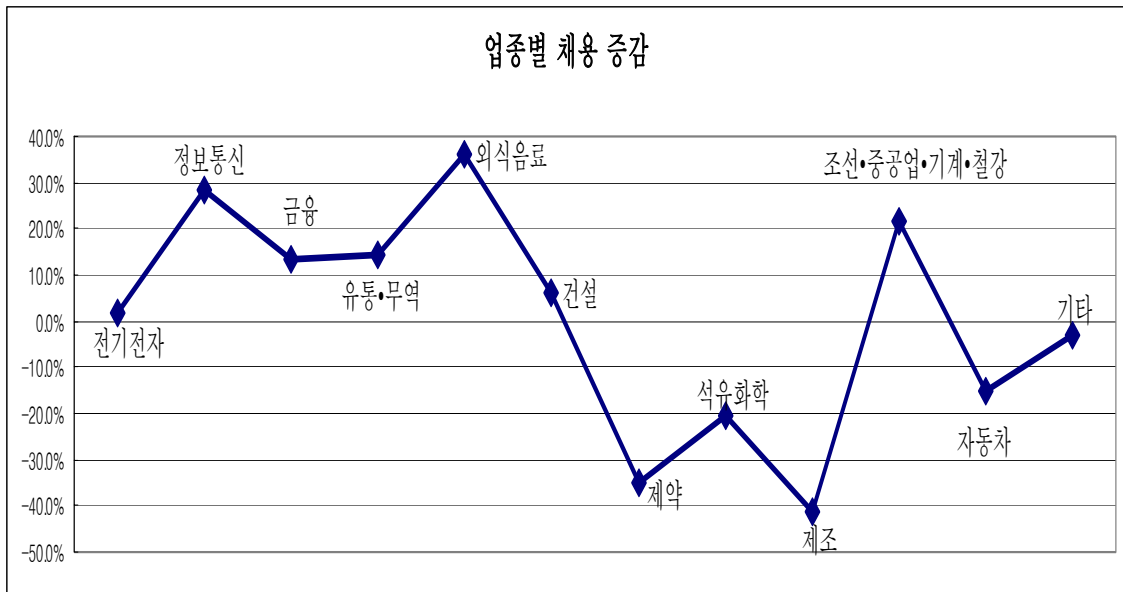
3. 업종별 채용 기상도

- 전기전자 채용 평년작
- 정보통신, 금융, 외·식음료, 유통·무역 채용 활기
- 건설 채용 활발
- 제조, 제약 채용 찬바람
- 자동차, 석유화학 채용 흐림
- 조선·중공업 채용 활기, 기계·철강 소극적 채용

외·식음료, 정보통신, 조선·중공업·기계·철강, 금융 등의 채용은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제조, 제약, 자동차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전기전자는 올 하반기 채용 상승세가 다소 꺾이며 2.0% 소폭 상승세에 그쳤다. 그러나 채용규모 면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을 것으로 보여, 전기전자가 하반기 채용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식업체들이 점포확장에 따른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외·식음료의 채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기전자 채용 평년작

수출 중심 업종인 전기전자가 고유가, 환율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는 등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전기전자 업종의 올 하반기 채용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전기전자 업체 56개사 중 73.2%(41개사)가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은 8.9%(5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채용규모는 6천168명으로 지난해 6천47명에 비해 2.0%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채용 규모 면으로 보면 전체 채용규모의 30%에 달할 정도로 전 업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도 150명에 달한다.

전기전자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기업수	41	10	5	56	6047명	6168명	2.0%
비율	73.2%	17.9%	8.9%	100.0%			

정보통신 채용 훈풍

IT 산업 경기의 회복세 속에서 오랜만에 IT 업종 채용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IT 업체들이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늘려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업체 53개사 중 73.6%(39개사)가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은 11.3%(6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채용규모는 1천883명으로 지난해 1천466명에 비해 28.4%나 늘어난 것이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48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기업수	39	8	6	53	1466명	1883명	28.4%
비율	73.6%	15.1%	11.3%	100.0%			

금융 채용 활발

그동안 보수적 채용을 운영해오던 금융권의 하반기 채용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활황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채용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업체 77개사 중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업체는 68.8%(53개사)에 달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지난해 하반기 조사결과(38.2%)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채용을 미루는 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금융권이 채용에 적극적인 셈이다.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은 15.6%(12개사)에 그쳤으며,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15.6%(12개사)였다.

채용규모는 1천909명으로 전년 동기(1천685명)에 비해 13.3%나 더 많이 뽑는다. 이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금융 업체들이 채용을 최대한 자제해왔기 때문에 조직 유지 차원에서라도 신규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채용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증권업. 전년동기보다 100% 가까이 채용규모가 늘어나는 등 금융권의 채용시장 상승기조를 이끌어가고 있다.

금융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53	12	12	77	1685 명	1909 명	13.3%
비율	68.8%	15.6%	15.6%	100.0%			

유통·무역 채용 순풍

내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통·무역 업체들은 하반기에도 채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황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할인점을 중심으로 채용이 전개될 전망이다. 점포 확장 계획을 세우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는 할인점 채용에 힘입어 유통·무역 업종의 채용시장은 전년보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유통·무역 46개사 중 65.2%(30개사)가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규모는 993명으로 전년 동기(869명)에 비해 14.3%나 증가할 전망이다. 한 기업당 평균 33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한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전체 업종에서 두번째로 적은 것이다. 이처럼 유통·무역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적은 것은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던 채용방식을 벗어나,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통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30	9	7	46	869 명	993 명	14.3%
비율	65.2%	19.6%	15.2%	100.0%			

외·식음료 채용 활발

외·식음료업체들은 올 하반기 신규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포확장에 나서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업체들을 중심으로 채용이 활발할 전망이다.

외식음료 49개사 중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기업은 65.3%(32개사)나 된다. 채용규모는 2천665명으로 전년 동기(1천958명)에 비해 36.1%나 늘었다. 전 업종 중 채용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도 83명으로 전기전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특히 외식업체들은 불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점포를 내고 있어 꾸준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식음료 업체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음료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32	13	4	49	1958 명	2665 명	36.1%
비율	65.3%	26.5%	8.2%	100.0%			

건설 채용 활발

국내 건설투자가 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설경기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타고 있다.(건설교통부 자료)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 채용시장도 간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일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노동력 투입이 불가피한 업종 특성상,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신규 채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불투명한 경기상황에서 그동안 채용을 최대한 억제해왔기 때문에 신규 인력 수혈이 필요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건설업체 42개사 중 57.1%(24개사)가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채용규모도 1천1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35명)에 비해 6.3% 늘어난 것이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46명이다.

건설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24	9	9	42	1035 명	1100 명	6.3%
비율	57.1%	21.4%	21.4%	100.0%			

제약 채용 찬바람

제약업종의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전망은 밝지 않다.

제약업체 29개사 중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51.7%(15개사) 정도. 소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 채용규모도 633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9%나 줄어든 것으로 전체 업종 중 두번째로 많은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제약업체들이 영업직은 비교적 활발하게 채용할 계획이어서 제약 영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은 이들 업체들의 채용계획을 눈 여겨 볼만 하다.

계약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15	8	6	29	973 명	633 명	-34.9%
비율	51.7%	27.6%	20.7%	100.0%			

석유화학 채용 흐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확대되고 있어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유가상승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신규 채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체 38개사 중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기업은 65.8%(25개사)나 됐으며 채용규모는 842명으로 지난해 하반기(1059명)보다 20.5%나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이 3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채용 확대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도 34명에 불과, 전 업종 중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세번째로 적었다.

석유화학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25	10	3	38	1059 명	842 명	-20.5%
비율	65.8%	26.3%	7.9%	100.0%			

제조 채용 침체

제조업체들은 고유가, 내수 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어 채용 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석유추출 원료를 기초용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섬,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체들은 치솟은 원료가격에다 내수 부진까지 겹쳐 공장 가동률을 낮추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신규 채용보다는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의 소극적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 48개사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45.8%(22개사)에 그쳤으며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37.5%(18개사)에 달했다. 채용규모도 519명으로 전년 동기(887명)에 비해 41.5%나 줄어 채용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도 24명에 그쳐, 전 업종 중 한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가장 적었다.

제조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22	18	8	48	887 명	519 명	-41.5%
비율	45.8%	37.5%	16.7%	100.0%			

조선·중공업 채용 활기, 기계·철강 소극적 채용

조선·중공업·기계·철강 52개사 중 48.1%(25개사)만이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40.4%(21개사)나 돼 전 업종 중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비율이 가장 높았다.

채용규모는 1천76명으로 전년 동기(884명)에 비해 21.7%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이 10개 사중 4개사에 달하는 데도, 채용이 증가한 원인은 조선·중공업에 힘입은 것이다.

조선·중공업은 2005년 하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수확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향후 3년간 수주물량이 확보돼 전망이 밝은 업종 중의 하나. 이런 영향으로 조선·중공업·기계·철강 채용규모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채용규모가 크며, 해당 업종의 채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조선·중공업·기계·철강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 년 하반기	2005 년 하반기	
기업수	25	21	6	52	884 명	1076 명	21.7%
비율	48.1%	40.4%	11.5%	100.0%			

자동차 채용 감소세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수요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내수 침체까지 겹친 자동차 업체들은 채용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줄여 잡고 있다.

자동차 업체 28개사 중 53.6%(15개사)만이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35.7%(10개사)에 달하는 등 10개사 중 9개사가 채용계획을 확정된 상태다.

올 하반기 자동차 업계는 1천2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1천430명)보다 15.1%나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기업이 채용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채용이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채용 계획 여부				채용인원		증감률
	있다	없다	미정	총합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기업수	15	10	3	28	1430명	1214명	-15.1%
비율	53.6%	35.7%	10.7%	100.0%			

※ 어떻게 조사했나

- 조사 기간: 2005년 8월 16일~ 24일
- 조사 대상 기업 : 589개 상장사
- 조사 방법 : 전화 설문
- 질문 내용 : 589개사의 올해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채용을 동시조사

4. 업종별 취업 전략

올 하반기는 업종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을 세워 도전하라. 업종별 채용격차가 크기에 취업을 위해서는 이 같은 최근의 채용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구체적인 취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전자 = 전기전자 업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징 때문에 인력 수요도 많은 편이다. 주요 채용분야는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인력. 때문에 이공계 채용이 7~80%에 달하고 있어 이공계 구직자가 노려 볼만 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영어나 교양 점수보다는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을 중시하므로 학창시절부터 전공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의 채용담당자들은 면접시 전공지식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각 전공에 따라 기본 공식을 묻고 이를 적용하는 응용질문을 하기도 한다. 대학 평점외에도 실제 어떤 전자회로를 만들어 봤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해 봤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

◆정보통신= 정보통신 업체들은 신입보다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졸업예정자나 졸업 후 미취업자들이 취업문을 뚫기에는 버겁다. 따라서 임시직이라도 얻어 경험을 쌓아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통신 관련 기업들은 고객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특히 중요시한다. 또한 팀 단위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협업(協業) 능력도 비중 있게 살펴본다. 따라서 면접의 주요 관찰 포인트는 설득력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거나 사고가 경직된 것으로 평가되면 면접에서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자동차= 자동차 업계의 주요 모집분야는 크게 △연구개발직 △일반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등으로 나뉜다. 이중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공계 출신의 채용규모가 상경, 인문계열 전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기계분야 전공자를 많이 뽑지만 전기, 전자기기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 분야 전공자의 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연구개발직과 일반관리직은 대졸 이상이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편이 유리하다. 영업직은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자동차 관련학과 출신자를 우대한다. 생산직은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을 갖추면 유리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학능력은 필수다.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를 해외에 팔거나 외국 현지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미리 토익점수 등 공인 어학성적을 취득해 두어야 한다. ‘공인 어학점수’를 받아두지 않으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유통·식음료= 유통, 식음료는 이공계보다 인문계 채용이 많은 편이다. 인문계 채용비율이 70~80%에 달할 정도. 따라서 인문계 여성이라면 유통·식음료 업계를 공략할

만하다. 여성 채용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유통·식음료업계는 제품의 종류가 많고 국민 모두가 고객이다. 소비자의 취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품의 평균수명도 짧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때문에 채용과정에서도 ‘창의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또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정신을 갖춰야 한다.

면접 비중도 높은 편이다. 업종 특성상 우선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 업종에 몸담아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적성에 맞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면접을 통해 가리기 위한 것. 면접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 =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정직성을 겸비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는 학과장이나 교수 추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소 학점관리를 착실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두면 추천서를 받을 때 유리하다.

공인회계사(CPA) 미국공인회계사(AICPA)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공인재무분석가 등 금융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면접 과정에서도 최근 금융계의 동향을 묻는 질문이 수시로 나온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금리나 환율의 변화가 경제나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 세금제도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건설·조선·중공업 = 현장 중심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아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채용분야는 연구기술 및 설계, 생산관리, 일반 사무, 영업직. 이중 연구기술 및 설계, 생산관리 채용이 많은 편. 때문에 이공계 채용이 주를 이룬다. 이 업종의 이공계 채용비율은 70~80%에 달한다. 건축·토목·기계·전기·조정 등 이공계 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으므로 이공계 구직자들이 노려볼만 하다.

건설·조선·중공업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조직 친화력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좋다. 업종 특성상 타 부서와 조화를 이루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일이 많기 때문에 밀어붙여 일할 수 있는 투심과

추진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서류만으로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목과 소양, 창의성, 추진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구직자들은 이런 업종 특성을 고려,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제약 =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다루는 업종만큼 인간존중이나 도덕성 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때문에 지원자의 이러한 가치관 확인을 위해 '고객이 리베이트나 과도한 접대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과 같은 면접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따라서 제약업체의 이러한 가치관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업체들이 주로 채용하는 분야는 영업, 연구직 및 학술직. 연구직이나, 학술직 등은 제약, 약학, 화학 등의 전공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의 직종의 경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의약 관련 지식을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특히 제약업체에서 가장 활발히 채용하는 영업직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 영업직 도전자라면, 의약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MR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제약업체는 수시, 상시 채용을 진행하므로, 채용정보를 놓치지 않고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5. 주요 기업 채용규모 및 일정표

인크루트(www.incruit.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삼성전자	2500 명	9 월
LG 전자	1000 명	9 월
한국전력공사	150 명 미만	10 월
하이닉스반도체	600 명	9 월~10 월
LG 이노텍	200~300 명	11 월
삼성 SDI	310 명	9 월
삼성전기	85 명	9 월
팬택&큐리텔	인원미정	9 월

LG 실트론	10 명내외	10 월,11 월
신도리코	30 여명	10 월
대덕전자	10 명이내	11 월~12 월
LS 산전	채용미정	미정
동부아남반도체	150 명	10 월
현대통신산업	10 명내외	수시
케이티티텔레콤	5 명	10~11 월
한국중부발전	채용미정	
한국서부발전	채용미정	
한국전기안전공사	40 명 내외	9 월 15~9 월 21 일
기산텔레콤	15 명	수시
와이드텔레콤	8 명	
네오웨이브	인원미정	10 월~11 월경
에스텍	10 명	9 월

정보통신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KT	미정이나 100 명 예정	9 월
SK 텔레콤	140~150 명	9 월
KTF	미정이나 전년(55 명) 수준	10 월
LG 텔레콤	80 여명(신입 50, 30 명)	9 월 중순
SK 텔링크	30 명	10 월중
삼성 SDS	450 명	9 월
삼성네트웍스	30 명	9 월
KTF 테크놀로지	30 명	10 월
LG CNS	신입 200 여명, 경력 100 여명	9 월
LG 엔시스	인원미정	수시
대우정보시스템	30 명	7 월
SK C&C	50~100 명	9 월
NHN	100 명이내	수시
KTH	20~30 명	9 월~10 월
넥슨	100 명	수시
다우기술	20 명	10 월
효성인포메이션	결원시채용	

한국 IBM	30 명	9 월~10 월
링네트	5 명	10 월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5 명	10~11 월
현대정보기술	50~60 여명	수시
신세계아이앤씨	10 명	11 월
농심데이터시스템(NDS)	10 여명내외	수시
대림 I&S	19 명	
다우데이터시스템	5 명내외	수시
동부정보기술	인원미정	10 월
한솔텔레콤	작년(4 명)보다는 많을듯	9 월
나이스정보통신	채용미정	

금융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국민은행	미정	미정
우리은행	100 명이내	11 월
예금보험공사	25 명 내외	9 월 12~9 월 16 일
KAMCO(한국자산관리 공사)	인원미정	10 월~11 월
교보생명	70~80 명	수시
ING 생명보험	00 명	수시
삼성생명	170 명	9 월
삼성화재	100 명	9 월
동양화재	인원미정(90 여명)	10 말~11 월 초
LG 화재	약 50 명	10 월 초
대한생명보험	인원미정	9 월
교보자동차보험	20 명	11~12 월
농협중앙회	채용미정	
금융감독원	전년수준(30 명 내외)	9 월 12~9 월 16 일
한국산업은행	70 명 내외	9 월 20 일~9 월 23 일
한국수출입은행	30 명	9 월 8~9 월 14 일
한국수출보험공사	20 명 내외	9 월 5~9 월 15 일
중소기업은행	100 명	9~10 월

한국씨티은행	결원시채용	
외환은행	60명	11월
하나은행	채용미정	
한국은행	50명	9월 5일~9일
동부화재해상보험	100명	10월초
무한투자	2명	8월,10월
삼성카드	75명	9월
삼성증권	90명	9월초
메리츠증권	인원미정	11월경
동부증권	20명	10월
우리자산운용	2명	9월,10월
SK증권	10명	9월 중순
부국증권	10여명	11월~12월예정
굿모닝 신한증권	채용미정	9월
한화증권	인원미정	10월
동양종합금융증권	50명	10월 이후
대신증권	100명	10월 4일~14일
미래에셋증권	30명내외	

유통·무역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롯데쇼핑	00명	
신세계	00명	10월
롯데마트	100~200명	
CJ 홈쇼핑	100명 안쪽	9월초
삼성물산(상사)	40명	9월
삼성물산(유통)	15명	9월
한화유통	채용있음	미정
메가마트	10명 이내	10월
우리홈쇼핑	결원시채용	
한국나이키	6명	매달 발생시
월마트	15명	8월진행중
한화/무역	10명	9~10월
애경백화점	채용미정	

그랜드백화점	결원시채용	
대우인터내셔널	인원미정	10 월
대림코퍼레이션	3 명	

외·식음료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롯데칠성음료	10 명내외	10 월
동원수산	10 명내외	미정
오리온	결원시채용	
매일유업	30 명	미정
오뚜기	70~80 명	11 월
크라운제과	40 명	9~10 월
대림수산	결원시채용	
해태제과	60~70 명	11 월
롯데햄/우유	채용있음	12 월
풀무원	채용미정이나 작년(25 명)보다는 적을듯	수시
아워홈	180 명(영양사 150 명, 조리사 30 명)	9 월
아모제	350 명(마르쉐 200 명, 오므토토마토 150 명)	10 월 집중, 수시
CJ 푸드시스템	10~15 명	10 월
두산식품 B.G	5 명	9 월
동원	2~3 명	9 월
CJ 푸드빌(빔스, 스카이라)	200 명정도	9~10 월
아웃백스테이크	100 명	수시
한국맥도날드	80 명(매월 20 명씩-매장관리직 채용함)	매월말
베니건스	260 명	10 월, 11 월정도

건설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포스코건설	신입 107 명, 경력사원 00 명	7 월, 10~11 월
대우건설	채용미정	10 월
SK 건설	90 명	9 월
신동아건설	00 명	수시

한국토지공사	채용미정	
한국수자원공사	채용미정	12 월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직 29 명 채용 진행중 신입공채 100 명 내외	연구직 9/5~14 신입공채 10 월~11 월
삼성엔지니어링	40 명	9 월
두산산업개발	50 명	9 월
풍림산업	채용미정이나 작년(40 명)보다 적을듯	12 월
삼호개발	채용미정이나 작년(20 명)과 비슷	
계룡건설산업	30 명	10 월말
유신코퍼레이션	결원시채용	
한라건설	작년(34 명)수준	11 월
서한	결원시채용	결원시
동부건설	80 명	10 월
고려개발	20 명	
대림산업건설사업부	100 명	9 월
삼호	30 명	
대림콘크리트공업	3 명	

계약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유한양행	50 명	11 월
서울계약	결원시채용	
영진약품공업	채용미정	
광동계약	50 명	8 월 /11 월예정
일양약품	40 명	11 월
태평양계약	인원미정이나 작년(35 명)보다 적을듯	11~12 월
한독약품	25 명	8~9 월
한국 MSD	00 명	매달 발생시
한국얀센	30~40 명	10 월
신풍계약	20~30 명	7 월, 10 월
신일계약	결원시채용	수시
라이브코드	채용미정(5 명내외)	11 월
삼아약품	30 명	수시
LG 생명과학	채용미정	

근화계약	25 명정도	10 월
------	--------	------

석유화학가스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SK	90 명	9 월
GS 칼텍스	40 명내외	9 월초
S-Oil	작년(10 명이내)과 같은수준	수시
SK 가스	0 명	9 월~10 월말
LG 화학	000 명	연말
삼성토탈	10 명	9 월
삼성석유화학	5 명	9 월
삼성정밀화학	35 명	9 월
삼성 BP 화학	5 명내외	9 월
동부정밀화학	2 명	7 월
KCC	100 여명	12 월
한화/화학	20 명	9~10 월
한화석유화학	인원미정	9 월
SK 케미칼	50 여명	곧 채용예정
조광페인트	채용미정	
현대오일뱅크	인원미정	10 월
한국석유공사	채용미정	
대구도시가스	5 명내외	수시
대림산업석유화학사업부	5 명	
리드코프	10~20 여명	수시

제조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효성	신입 미정이나 전년(200 명)수준, 경력 100 명	신입 10 월, 경력 9 월
삼성코닝	40 명	9 월
삼성코닝정밀유리	90 명	9 월
제일모직	90 명	9 월
태평양	50 명	10~11 월

한국 P&G	10 명이내	매달 발생시
금강제화	채용미정	
한샘	작년(50 명)수준	미정
로만손	결원시채용	수시
아인스	채용미정(10 명내외)	
에스지위카스	채용미정	
코오롱글로벌	인원미정	미정
한솔홈데코	6 명	11 월
바른손	5 명내외	연말, 혹은 연초
한솔제지	인원미정	11 월
영풍제지	채용미정	
아세아제지	결원시채용	
백산	2~3 명	미정
나드리화장품	10 명	매월 필요시
삼광유리공업	결원시채용	

조선·중공업·기계·철강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삼성중공업	350 명	9 월
삼성테크윈	200 명	9 월
두산중공업	120 명	9 월
현대중공업	인원 미정	9 월
현대미포조선	00 명	9 월
대우조선해양	20 명	9 월
STX	200 명	9 월~10 월
한화기계	채용미정	
두산메카텍	20 명이상	9 월
동부제강	30 명	10 월
현대하이스코	00 명	10 월
한일시멘트	11 명	10~11 월
고려아연	결원시채용	
비앤지스틸	00 명	미정

자동차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현대기아자동차	600~800 명 사이	10 월
GM 대우자동차	인원미정	8 월,10 월
르노삼성자동차	100 명	수시
대우자동차판매	채용미정	
현대모비스	인원미정이나 작년(70~80 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뽑을것 같음	미정
오스텀	채용미정(12 명)	미정
위아	00 명	10 월
오택	5 명	8~9 월
대림자동차공업	15 명	
현대파워텍	00 명	12 월예정
SL	작년(60 명)보다는 적음	10 월

기타	2005 하반기 채용인원	채용시기
현대택배	결원시채용	
대림 H&L	5 명	
아시아나항공	인원미정(채용할 경우 20~30 명)	9~10 월
한솔 CSN	10~15 명	10 월초
하나투어	100 명	10 월
CJ CGV	50 명	10 월
한화국토개발	10 명	10 월
오라관광	25 명	
한국마사회	작년(연간 29 명)보다많을듯	미정
호텔신라	20 명	9 월
제일기획	30 명	9 월
삼성에버랜드	65 명	9 월
삼성종합기술원	50 명	9 월
에스원	20 명	9 월
YBM 시사닷컴	채용미정	
한솔교육	20 명	9~11 월
농우바이오	10 명이내	11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미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채용미정	
웅진닷컴	결원시채용	
한컴	인원미정이나 작년(5명)보다 적을듯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	20명 내외	10월
교통안전공단	13명	9월 12일~9월 15일
소방검정공사	3~4명	10~11월

채용인원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인크루트에 있으며 본 책자의 내용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복제 또는 임의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05 Incrui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